

# 6학년 아동의 수줍음 :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의 관계

The shyness in sixth-graders : Its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도현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Full-time Instructor : Hyun-sim Doh

##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and social behaviors such a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The subjects were 435 sixth-graders(221 boys and 214 girls) and their mothers and teachers.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to rat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1) shynes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varied little as a function of sex and birth order of children, and 2) shyness was related negatively both to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to peer acceptance.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낮선 상황에 처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아동은 전혀 모르는 또래집단에 쉽게 합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다른 아동들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자의 공통적인 행동특성

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줍음을 보이는 아동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사회적인 지식 및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및 규칙의 협상과 같은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기가 쉽다(Putallaz & Gottman, 1981).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특히 아동의 수줍은 행동이

훗날의 인성적·사회적 행동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더욱 강조된다(Caspi, Elder, & Bem, 1987). 즉, 이처럼 훗날의 발달과 관련되는 아동기의 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자들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줍음에 관한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Kagan 등 많은 연구자들은 중단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수줍음을 생물학적·기질적인 측면으로 결론짓고 있으며(Kagan, Reznick, & Snidman, 1987; 1988), 그 외 다른 연구자들은 신경증적인 측면(Biederman et al., 1990)이나 부모의 특성(Rickman & Davidson, 1994)에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사회성에 관심을 두어온 반면에, 아동의 수줍음을 부모의 기질특성과 관련시켜 연구한 도현심, 박성연(1992)을 제외하고는 수줍음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Buss와 Plomin(1984)에 의하면, 아동의 수줍음과 사회성은 아동의 양극단적인 행동특성이라기 보다는 다소의 관련성이 있는 뚜렷한 별개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수줍은 아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성은 높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성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사회적 관심이나 참여도와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대인적응성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기도 하며, 때로는 양자를 모두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성에 대한 연구를 해석할 때는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줍음에 대한 연구가 부모-자녀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져온 점과 국내의 미비한 연구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우선 아동의 수줍음을 이와 관련된 다른 사회적 행동특성들과 관련시켜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수줍음이라는 행동특성이 지속된다면 훗날의 인성발달 및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수줍음이 아동의 대인적응성을 비롯하여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또래수용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과 같은 행동특성들이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와 같은 요인들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 속에서 최단하여 어느 정도의 일치를 보이는 그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B.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문제 1.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은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문제 2. 아동의 수줍음은 대인적응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문제 3. 아동의 수줍음은 또래수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문제 4.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A. 수줍음의 개념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수줍음은 억제된 행동(inhibited behavior)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수줍음은 억제된 행동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어 낯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행동이다(Asendorpf, 1991; Garcia-Coll, Kagan, Reznick, 1984; Kagan & Moss, 1962; 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Coll, 1984; 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b). 아동 행동의 동기적인 측면을 부가하여 수줍음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자면, 수줍음은 타인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줍음은 사회성이 낮은 상태, 즉 접근하려들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는 상태와는 비교가 되며, 낯선 상황에 대해서만 위축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진속

한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Asendorpf, 1990; 1991).

수줍음은 다른 인성특성들과 마찬가지로 기질·생물학·유전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의 커다란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수줍음은 타고난 특성으로서 다른 기질적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일생을 통해 신경정신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Biederman et al., 1990). 따라서 수줍음이 지속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측할 수가 있다. 또한 Kagan과 동료들(1984; 1987; 1988a)은 억제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과 생물학적인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즉, 전자는 후자에 비해 심장박동율과 동공 팽창 등과 같은 교감신경계의 반응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유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란성 쌍생아는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에서 뿐만 아니라 (Plomin & Rowe, 1979), 억제된 행동의 변화에서 보다 많은 유사성을 보였다(Matheny, 1989). 또한 영아의 수줍음, 부모의 사회적 및 부모의 외향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의 경우가 양부모와 입양된 자녀들의 경우들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Daniels & Plomin, 1985). 즉, 수줍은 아동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의 부모들에 비해 보다 더 수줍어하고 외향성이 낮았다(Daniels, & Plomin, 1985; Rickman, & Davidson, 1994).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일치적으로 나타났다.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현심, 박성연(1992)에 의하면, 부모의 수줍음은 자녀의 수줍음과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사회성은 자녀의 수줍음과 유의적인 역상관이 있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억제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Kochanska, 1991). 이것은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인해 제한적인 환경적 자극이 주어질 때 아동은 억제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해 보면, 이러한 유전적·환경적 측면이 아동의 수줍음 혹은 억제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자간의 상호작용적인 면에서 해석되어진다. 즉, 아동

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수줍음간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은 타고난 특성으로서 수줍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소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보다 제한된 사회적 접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동의 수줍음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지속 혹은 강화되거나 아니면 감소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B.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

아동의 수줍음에서의 성차는 비일치적으로 보고된다. 수줍음에서의 성차를 보고하는 연구들 중에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수줍음을 더 많이 보인다는 데 대체로 일치한다. 즉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접근적인 행동을 덜 보일 뿐만 아니라, 물건에 접근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렸다(Garcia-Coll et al., 1984; Maziade, Boudreault, Thivierge, Caperaa, & Cote, 1984; Rothbart, 1988). 반면에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수줍음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Broberg, Lamb, & Hwang, 1990; Plomin & Rowe, 1979).

기질적인 측면에서 정의되는 수줍음과 비교해 볼 때,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과 같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에서와 공격성 혹은 지배성과 관련된 행동들에서 남아와 여아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Bee, 1992). 남아는 상대방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행동들을 통해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아는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제안적인 언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Maccoby, 1990). 같은 맥락에서,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행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대인적응성에서의 성차는 다소 일관적으로 보고된다. 즉, 대인적응성을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이고 다정한 행동특성으로 정의할 때, 여아는 남아보다 높은 대인적응성을 보였다(박성연, 도현심, 1993). 그러나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성향으로 정의되는 또래수용성에 있어서는, 성차에 대한 보고가 일관적이 아

니다. 교사의 평가를 이용한 Stuart와 동료들(1991)에 의하면, 아동의 성에 따라 또래수용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고찰한 Falob와 Polit(1986)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들은 외동이와 형제아들간의 행동특성적인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 고찰을 통해, 출생순위 자체에 따라 아동의 행동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C.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간의 관계

#### 1. 아동의 수줍음과 대인적응성

아동의 수줍음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으로서 사회성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은 훗날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Asher, Oden, & Gottman, 1977; Hartup, 1983)에서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온 주제이다. 따라서 방대한 연구에 비해 금갈 만큼, 사회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명칭에 있어서도 사회적 능력이나 대인적응성 등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수줍음과 사회성간의 연구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소 비일관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수줍음이 사회성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데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Buss & Plomin, 1984; Kagan et al., 1988b). 높은 사회성을 가진 아동들은 혼자 있기 보다는 또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즉 그들은 좋은 대인적응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에게 다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Buss and Plomin, 1984).

Asendorpf(1990)가 밝혔듯이, 수줍음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는 비사회성(unsociability)이나 사람들을 강하게 피하는 도피성의 개념과 구별된다. 따라서 사회성의 개념에 다

른 사람과 함께 싶어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관심의 의미를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 수줍음과 사회성간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즉, 수줍음을 나타내는 아동은 사회적인 관심은 있으나 동시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시킨 사회성의 개념은 수줍음과 사회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 발달이 또래관계에서의 조화로운 관계라는 점에 동의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보다 협의의 의미에서의 사회성, 즉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로서 표현되는 대인적응성을 수줍음과 관련시키고자 한다. 수줍음을 나타내는 아동들의 대인적응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발달적인 측면에서의 수줍음을 재조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 2. 아동의 수줍음과 또래수용성간의 관계

수줍음을 타는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에게 관심은 있으나 다가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무시받거나 거절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Asendorpf, 1990). 나아가서 아동의 수줍음과 낮은 또래수용성간의 상관관계는 사회평가적인 관심에 의해 중재된다. 즉, 또래로부터 받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그러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억제된 행동을 더욱 많이 하게 만든다. 따라서 또래집단으로부터 거절받는 아동들은 억제된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경향이 있다(French, 1988).

#### 3.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간의 관계

대인적응성이나 또래수용성과 같은 또래집단에서의 행동특성은 또한 미래의 적응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가지는 아동들은 학교를 중퇴하거나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정신적 건강상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er & Asher, 1987).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은 아동의 또래관계를 나타내

는 지표와도 같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행동특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비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또래수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아동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Black & Hazen, 1990; Ladd, Price, & Hart, 1988). 반대로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기가 쉽다. 또래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아동들에 비해서, 수용받는 아동들은 보다 많은 적응력이 있다(Stuart et al., 1991). 그들은 보다 높은 대인적응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래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래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으며(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우호적·친사회적·반응적 및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게 된다(Dodge, 1983).

### III.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435명의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남아: 221명; 여아: 214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교사로 구성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특히 또래관계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Berndt, 1979), 수줍음과 같이 위축된 행동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아동을 가장 많이 접하는 어머니외에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들 자신이 지각하는 자신의 행동들을 조사하였다. 아동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실제와 유사하게 평가한다고 보고되기 때문에(Hirschi, 1969; Jessor, Graves, Hanson, & Jessor, 1968), 아동자신들의 보고를 포함하는 것은 적도의 타당도를 높이기라고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아동 행동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사의 평가를 포함시켰다. 교사는 아동의 학급에서의 일상적인 또래간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직접적

인 관찰이나 또래평정의 결과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Stuart et al., 1991).

#### B.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진 부모용, 교사용, 아동용 질문지로서, 각 질문지들은 내용상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수줍음에 관한 문항들은 Buss와 Plomin(1984), Cheek와 Buss(1981)에 근거하여 작성된 도현심, 박성연(1992)과 박성연, 도현심(1993)에서 이용한 것으로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에 관한 문항들은 Stuart와 동료들(1991)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각각 7문항과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행동특성문항들의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신뢰도값은 대부분 .70이상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표 1> 질문지별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의 신뢰도

	어머니용	교사용	아동용
수줍음	.74	.85	.64
대인적응성	.75	.86	.73
또래수용성	.72	.83	.71

평가자들에 따라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행동특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2>).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 교사 및 아동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의 지각을 각각 분석하기로 한다.

#### C.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먼저 교사들에게 어머니용, 교사용, 아동용의 세 가지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

〈표 2〉 평가자에 따른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의 평균과 paired t-test 결과  
(괄호안은 표준편차)

변 인	평 가 자			어머니/ 교 사	교사/ 아 동	어머니/ 아 동
	어머니	교 사	아 동	교 사	아 동	아 동
수줍음	2.44 (.61)	2.44 (.59)	2.31 (.59)	-.02	2.31*	5.14***
대인적응성	3.60 (.47)	3.36 (.44)	3.41 (.51)	9.27***	-1.74	7.12***
또래수용성	2.97 (.53)	2.68 (.57)	2.79 (.59)	10.36***	-4.13***	7.32***

\*  $p < .05$ ; \*\*\*  $p < .001$

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3일후에 회수되었다. 아동들은 자신들의 행동특성에 관해 기술된 아동용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1인당 28명 정도의 아동들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백분율, 빈도, Pearson's 상관계수 등을 산출하고 paired t-test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A.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행동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행동특성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구분을 위해서는 외동이와 둘째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동이, 첫째아, 둘째아로 구분하였다. 어머니에 의한 평가에서, 대인적응성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출생순위에 따른 효과와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여아( $M = 3.68$ ,  $SD = .45$ )는 남아( $M = 3.54$ ,  $SD = .46$ )보다 더 높은 대인적응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적응성에서의 성차를 보고한 Garcia-Coll과 동료들(1984)과

일치한다. 또래수용성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성별에 따른 효과와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Duncan multiple range 검증의 결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외동이와 둘째아사이에서만 유의적으로 나타나( $F(2,324) = 3.09$ ,  $p < .05$ ), 둘째아( $M = 2.88$ ,  $SD = .43$ )는 외동이( $M = 2.67$ ,  $SD = .47$ )보다 더 높은 또래수용성을 보였다. 교사와 아동 평가의 경우에는,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행동특성상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아동의 수줍음은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한 도현삼, 박성연(1992)과 일치하였다. 요약해 보면,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같은 행동특성은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대인적응성(어머니의 지각)  
( $N = 327$ )

	DF	MS	F
성(A)	1	.52	4.63*
출생범주(B)	2	.23	2.09
A X B	2	.00	0.01
오차	321	.11	

\*  $p < .05$

##### B. 수줍음과 대인적응성·또래수용성간의 관계

아동의 수줍음과 대인적응성·또래수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평가자별로 Pearson's 상관계수를 조사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아동의 수줍음은 대인적응성과 유의적인 역상관이 있었다. 즉, 아동의 수줍음이 높을수록 대인적응성은 낮게 나타났다. 각 평가자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동평가는 각각  $r = -.35$ 와  $r = -.39$ 로서 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 교사평가는  $r = -.47$ 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수줍음은 또래수용성과도 유의적인 역상관을 보여, 수줍음이 높게 나타난 아동일수록 또래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처럼, 이러한 결과는 세 명의 평가자 각각에게서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에 의하면, 수줍음과 또래수용성은  $r = -.52$ 로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지각에 의하면  $r = -.72$ 로서 강한 역상관이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아동의 수줍음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화로운 대인관계와 또래로부터의 선호성의 정도는 낮다. 즉,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것으로서(Asendorpf, 1990), 수줍음이라는 행동특성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존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비일관적으로 보고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본다.

1.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은 어머니의 평가에서만 다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적으로, 여아는 남아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보다 조화로운 행동, 즉 높은 대인적응성을 보였다(박성연, 도현심, 1993; Maccoby, 1990).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

〈표 4〉 평가자별 수줍음과 대인적응성·또래수용성간의 관계

	대인적응성			또래수용성		
	어머니	교사	아동	어머니	교사	아동
수줍음	-.35***	-.47***	-.39***	-.52***	-.72***	-.52***

\*\*\*  $p < .001$

C.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간의 관계

어머니, 교사 그리고 아동의 평가 모두에서,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은 각각  $r = .53, .66, .45$ 로서 유의적인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높은 대인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또래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5〉).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Dodge, 1983; Stuart et al., 1991), 긍정적인 대인적응성을 통해 아동은 보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가짐을 시사한다.

〈표 5〉 평가자별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간의 관계

	또래수용성		
	어머니	교사	아동
대인적응성	.53***	.66***	.45***

\*\*\*  $p < .001$

를 보면, 외동이가 둘째아에 비해 낮은 또래수용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박성연, 도현심(1993)에서 외동이가 둘째아에 비해 대인적응성이 낮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인적응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또래수용성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출생순위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어머니의 평가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교사와 아동의 평가에서는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행동특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Falbo와 Polit(1986)의 결론과 일치한다.

2.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었던 아동의 수줍음과 대인적응성·또래수용성간의 관계는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수줍음은 원만한 또래관계를 나타내는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강한 역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처리모델(information-processing model)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한 Dodge와 동료들(Dodge, Pettit, McClaskey, & Brown, 1986)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가 있다. 즉, 또래집단에서 거절되는 경험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기가 쉽고, 결국은 수줍음을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수줍음이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또한 기

나타내기가 쉽다(French, 1988; Rubin, Hymel, LeMare, & Rowden, 1989). 또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대인적응성에 있어서도 수줍은 아동들은 이러한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수줍음이 대인적응성과 역상관을 보이는 것은 수줍은 아동이 또래들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표현적인 점에서 고려해 볼만 하다. 즉, 아동의 낮은 대인적응성이 공격성과 같은 비우호적인 성향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단지 수줍음이라는 행동의 표현적인 결핍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만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수줍음 뿐만 아니라 낮은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이 아동의 훗날의 건전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Asher et al., 1977; Caspi et al., 1987), 아동의 수줍음이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가지는 밀접한 관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아기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들이기는 하지만, 아동의 수줍음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Broberg et al., 1990; Kagan, Reznick, & Gibbons, 1989), 수줍음이 성인기에 까지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행동적인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어린 시기의 수줍음이 성인기에 이르는 동안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아무리 수줍음이 많은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경청(listening), 미소(smiling) 및 지지(supportiveness) 등과 같은 사회적인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또래들로부터의 수용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Bierman, 1986). 즉, 또래관계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수줍은 아동들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취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3.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의 관계는 기존연구들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Gottman et al., 1975). 또래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아동들은 또래와의 원만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또래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를 얻기가 쉽다.

한편, 방법론적인 면에서, 본 연구는 평가자에 따라 아동의 행동특성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에 대한 어머니, 교사, 아동의 평가를 비교해 볼 때, 평가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대인적응성·또래수용성과 같은 행동에 대해 교사나 아동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albo와 Polit(1986)가 많은 연구들의 고찰결과에서 밝혀낸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어머니는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나 아동에 비해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고려되는 교사가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특성을 가장 낮게 평가함으로써, 어머니나 아동 자신은 아동의 행동에 대해 보다 관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줍음에 있어서는, 아동 자신보다 제 3자인 어머니와 교사가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어, 아동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자신이 덜 수줍어한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의 수줍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기존연구결과(도현심, 박성연, 1992)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불안감이나 우려가 덧붙여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처럼 평가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의 행동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평가자에 따른 서로 다른 지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관심과 대인적응성에서 어머니와 아동간의 지각을 비교한 박성연, 도현심(1993)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수줍음은 또래관계를 나타내주는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 등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수줍음이라는 행동특성의 개선적인 측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동의 수줍음은 기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평가적인 면에서 설명될 수가 있어, 수줍은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내리기가 쉽고, 결국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계



다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수줍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해 볼 때(도현심, 박성연, 1992), 다양한 사회적 기술의 경험을 통하여 수줍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도현심, 박성연. 한국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 325-338.
- 2) 박성연, 도현심.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한국아동학회지, 14(2), 1993, 35-47.
- 3) Asendorpf, J. B.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Evidence for situational specificity and a two-factor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990, 721-730.
- 4) Asendorpf, J. B. Development of inhibited children's coping with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2, 1991, 1460-1474.
- 5) Asher, S. R., Oden, S. L., & Gottman, J. M. Children's friendships in school settings. In L. G. Kats. (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Vol. 1)(pp. 33-62). Norwood, N. J.: Ablex, 1977.
- 6) Bee, H. *The developing child*. New York: HarperCollins, 1992.
- 7) Berndt, T. J.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979, 608-616.
- 8) Biederman, J., Rosenbaum, J. F., Hirshfeld, D. R., Faraone, S. V., Bolduc, E. A., Gersten, M., Meminger, S. R., Kagan, J., Snidman, N., & Reznick, J. S. Psychiatric correlates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of parents with and without psychiatric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90, 47, 21-26.
- 9) Bierman, K. L. Process of change during social skills training with pre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treatment outcome. *Child Development*, 57, 1986, 230-240.
- 10) Black, B., & Hazen, N. L. Social status and patterns of communication in acquainted and unacquain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990, 379-387.
- 11) Broberg, A., Lamb, M. E., & Hwang, P. Inhibition: It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16-to 40-month-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990, 1153-1163.
- 12) Buss, A. H. & Plomin, R. The inheritance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41, 1984, 513-524.
- 13) Cheek, J. M., & Buss, A. H.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981, 330-339.
- 14) Caspi, A., Elder, G. H., Jr., & Bem, B. J. Moving against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987, 303-308.
- 15) Daniels, D., & Plomin, R.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shy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985, 118-121.
- 16) Dodge, K. A.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983, 1386-1399.
- 17) Dodge, K. A., Pettit, G. S., McClasky, C. L., & Brown, M. M.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Serial No. 213), 1986.
- 18) Falbo, T., & Polit, D. F.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 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0(2), 1986, 176-189.
- 19) French, D. C.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boys: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subtype. *Child Development*, 59, 1988, 976-985.
- 20) Garcia-Coll, C., Kagan, J., & Reznick, J. S.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84, 1005-1019.

- 21) Gottman, J. M., Gonso, J., & Rasmussen, B.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1975, 709-718.
- 22) Hartup, W. W.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 P. H. Musse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Vol. 4)(pp. 103-196). New York: Wiley, 1983.
- 23) Hirschi, T.,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24) Jessor, R., Graves, T. D., Hanson, R. C., & Jessor, S. L. *Society, personality, and deviant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8.
- 25) Kagan, J., & Moss, H. A. *Birth to maturity*. New York: Wiley, 1962.
- 26)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Coll, C.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1984, 2212-2225.
- 27) Kagan, J., Reznick, J. S., & Gibbons, J. Inhibited and uninhibited types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1989, 838-845.
- 28)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987, 1459-1473.
- 29)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988a, 167-171.
- 30)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O.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ward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988b, 1580-1589.
- 31) Kochanska, G. Patterns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children of normal and affectively ill mothers. *Child Development*, 62, 1991, 250-263.
- 32) Ladd, G. W., Price, J. M., & Hart, C. H. Predicting preschoolers' peer status from their playgrou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59, 1988, 986-992.
- 33) Maccoby, E. E.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1990, 513-520.
- 34) Matheny, A. P. Children's behavioral inhibition over age and across situations: Genetic similarity for a trait during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57, 1989, 215-235.
- 35) Maziade, M., Boudreault, M., Thivierge, J., Caperaa, P., & Cote, R. Infant Temperament: SES and Gender Difference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n a large Quebec sample. *Merrill-Palmer Quarterly*, 30, 1984, 213-216.
- 36) Parker, J., & Asher, S.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1987, 357-389.
- 37) Plomin, R., & Rowe, D. C. Genetic and environmental etiology of social behavior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979, 62-72.
- 38) Putallaz, M., & Gottman, J. M. Social skills and group acceptance. In S. R. Asher & J. M. Gottman(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pp. 116-1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1981.
- 39) Rickman, M. D., & Davidson, R. J. Personality and behavior in parents of temperamentally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1994, 346-354.
- 40) Rothbart, M. K.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988, 1241-1250.
- 41) Rubin, K. H., Hymel, S., LeMare, L., & Rowden, L. Children experiencing social difficulties: Sociometric neglect reconsidered.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 1989, 94-111.
- 42) Stuart, D. L., Gresham, F. M., & Elliot, S. N.

---

Teacher ratings of social skills in popular and rejected males and fema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 1991, 16-26.